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제 목	2018학년도 4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일시	2018.01.26.(금) 14:00-17:00
		장소	K동 206호
안 건	1. 등록금심의위원회 요청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성원이 충족되어 개회를 선언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요청한 자료전달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빠른 자료 전달을 요청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기숙사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고 함. 기숙사비 책정 및 공지가 이루어져야 학생들로부터 기숙사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숙사 관련 일정 확인을 요청 함. - 학생처장 : 자료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함. - 위원장 : 대부분의 자료는 전달했고, 마지막 검토 작업 중이라고 함. 다음 회의 전까지 모두 전달하겠다고 함.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부서로 요청을 하고, 답변이 미흡한 이유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추경예산안 편성이 끝났는지 질의 함. - 위원장 : 오늘 전달하겠다고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전달받은 시설안전관리공단 점검자료는 대학로캠퍼스, 문헌관, 제2기숙사, 홍문관으로 4개 건물인데, 시설 관련해서 학생들은 다른 건물들에 대해 더 궁금해 한다고 함. - 위원장 : 법 규정상 15층 이상 건물에 한해서 법률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우리 학교 내부위원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함. - 기획관리처장 : 세종캠퍼스는 10여명의 건축/전기 관련 교수님들과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 수해 발생 후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함. 		

- **위원장** :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자료를 주겠다고 함.
- **관재팀장** : 연구실정밀안전점검, 소방정밀점검은 매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우리대학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자율전공관련 제출 자료 중,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전공학생회장과 논의했다고 함. 기사 내용이 처음 듣는 내용들이고,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과 큰 괴리가 있다고 함. 자율전공 교수들에게 확인해 보니 과거 인터뷰를 기사로 쓴 것 같다고 함.
- **위원장** : 자율전공에 대해 최근에 제작한 자료이고, 보도가 된 자료라고 함. 자료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의문점을 정리해 질의 하면 답변하겠다고 함.
- **(서울)부총학생회장** : 자율전공 학생회장과 다시 논의 하겠다고 함. 자율전공 소수학과 학업보장 방안에 공연예술학과 실험실습비에 대한 엑셀파일이 자료로 있는데 오류가 아닌지 확인요청 함.
- **간사** : 융합전공이 실험실습비가 배정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실험실습비를 배정함으로써 수업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5차 까지만 진행했지만, 학교측의 요청자료에 대한 제출이 미비해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전체 진척 정도가 타학교 1,2차 수준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함. 앞으로 2주 정도 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에, 앞으로 1주일 내에 등심위를 계속 개회를 해야 된다고 함.
- **위원장** : 자료 대부분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위원들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추가로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한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작년 결산과 비교할 수 있는 추경예산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 함.
- **간사** : 추경 예산을 오늘까지 주겠다고 함.
- **학생처장** : 대학원 등록금 가고지 일정이 행정절차상 시급하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대학원 등록금 가고지 일정이 29일로 알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 가고지 일정은 언제인지 질의함.

- **간사** : 학부생들의 경우 등록금 수납을 2월 7일부터 예정되어 있으니, 가고지 일정은 2월 5일 정도라고 함.

- **위원장** : 대학원 등록금 1.6%, 외국인 등록금 5%를 인상 예정이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인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함.

- **위원장** : 경비 인상과 물가 인상비가 감안된 것이라고 함.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에서 동결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인하와 다름없기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함. 대학원의 경우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등록금 심의위원회 파행도 있었는데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서는 여기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함. 학부 위원들의 경우 등록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있을텐데 이 부분을 중점으로 논의하자고 함.

- **기획관리처장** : 사실 등록금 동결을 해도 등록금 수입분이 줄어든다는게 교육부 정원 감축도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함, 세종 만 해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원을 10%가 줄어드는데, 10%의 경우 90억이나 줄어드는 것이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그에 대해서는 평가지표가 미리 공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미리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준비하지 않아서였다고 함.

- **기획관리처장** : 그 부분은 교육부의 잘못이라고 함. 우리 학교는 분교가 아닌데도 평가를 나눠 받은 것이 문제였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평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함. 이에 대해서는 학교가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보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말로 합쳐서 받으면 높은 점수가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함.

- **기획관리처장**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라는 지점이 교육부 평가에 있다고 함. 정량에서는 별 차이가 안났다고 함. 정성 지표의 경우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평가와 정원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도 등록금 때문이기에, 이야기의 본질로 돌아가 등록금 이야기를 하자고 함. 학교가 여러가지 이유로 학부를 제외한 유학생, 대학원생의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인상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함. 흥익대학교가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예전 상황에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함.

함.

- **기획관리처장** : 결국 등록금 인상이 되지않았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학부를 제외한 외국인과 대학원은 올랐다고 함. 대학원의 경우,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전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적어도 3년 이상은 학부 총학생회장이 대학원과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리면 안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함. 학부가 대학원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의 본질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대학원 총학생회가 배석되지 않아서라고 함. 학교가 대학원 총학생회를 정식 자치기구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함. 학부의 경우 국가의 정책과 규제에 따라 등록금 동결이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나, 대학원의 경우, 인상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없어서라고 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이라고 함. 결국 대학원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학부 총학생회장이 대신해서 입장을 내놓는 것이고, 실제로 학부생들 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 것이 대학원생들이라고 함. 외국인 등록금 같은 것도 인상요인이 2015년도 까지 나오지 않았다가 작년에 교육부 입장문 나오자마자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회계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학교측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게 명분이 없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회계 지표를 확인했을 때에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함. 지금 가예산 책정 자료의 적립 예정 금액 225억 7천만원만 등록금 인하에 쓰더라도 대학원생을 포함한 홍익대학교 전체 등록금을 100만원 가까이 인하할 수 있다고 함. 대학의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1년 수입 분은 1년 안에 수출로 소진을 해야하는데, 예외 조항인 적립금을 통해 적립금을 쌓아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함. 10년 전 적립금이 3,600 ~3,900 억원 대의 규모였는데 10년 만에 거의 4천억원, 2배 가까이 올랐지만, 현재 학생회에서 설문지를 진행해본 결과 대한 400~500명의 답변들이 홍익대학교의 열악한 시설들에 대해 불만이었으며 이러한 자료처럼 학생들은 적립금 대비 열악한 시설에 불만이 많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적립금은 또 다시 적립하면서 대학원생과 외국인들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함.

- **위원장** :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 기수별로 지불해야하는 일종의 예치금 같은 것이라고 함. 현재 적립금이 많이 쌓여있으니까 그만 적립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선배들이 쌓아논 것에 대한 이익만 향유하려는 태도라고 함.

- **기획관리처장** : 과거에는 적립금에 대한 규제가 없었지만, 학생회장이 말

한 10년 전부터 규제가 생겨서 마음대로 적립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함. 학교는 10년 전부터 그 법에 맞추어서 적립금 이자, 건물 감가상각비, 목적미지정 기부금만 적립하고 있다고 함. 현재 홍익대학교는 불법적으로 적립금을 쌓고 있지 않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학교 위원님들은 현재의 적립금이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합법적이라는 말이 합리적, 도덕적임을 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함.

- **위원장** : 등록금 인상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 졌다고 함. 대학원 등록금은 등심위에서 다룰 내용이 아님에도 학생위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이미 적립금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등록금을 올린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함. 투자요인도 없는 상황이고, 가예산에서 세부 지출항목에 대학원생과 외국인학생에 대한 추가지원에 관한 금액도 책정되지 않았는데,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립금을 더 많이 쌓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함.

- **위원장** : 기본적인 물가상승, 교수 확보율 증가로 인한 인건비상승 등 각종 경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함. 홍익대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감가상각 총당비용으로 법률에서 정한 일정비율 만큼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우리학교는 등록금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함. 홍익대학교의 등록금 의존율은 70%로 사립학교 평균대비 16%정도 높다고 함. 등록금을 제외한 학교의 수입재원 중 산학협력 전입금도 낮고, 법인전입금도 낮다고 함. 산학협력 전입금이 낮으면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진다고 함. 학교가 투자를 통해, 연구시설과 같은 연구환경에 대한 기반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으며, 중장기 발전에만 치중한 모습이라고 함.

- **기획관리처장** : ① 산학협력단 실적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함. 작년 서울과 세종 산학협력단 실적이 개선되었으며, 산학협력단 지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분발하고 있다고 함. 이에 관한 데이터를 다음 회의에서 전달하겠다고 함.

② 대학원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원생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함. 외국인 대학원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홍익대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올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는 것이라

고 함. 등록금이 높다고 해서 그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함. 대학원 대부분의 학생들이 TA장학금 등을 받고 있어서 실제로 불만이 있는지는 조사해보아야 한다고 함. 학부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대학원생들의 환경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등록금 1.6% 인상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앞서 말한 유학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 및 환경에 관련하여 실제 당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만족도 등의 정량지표가 필요하다고 함.

- 기획관리처장 :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함

- 학생처장 :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등록금 인상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함. 역량과 자질을 갖춘 유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으며, 국내 학생과 같이 등록금 동결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함.

기획관리처장 : 한국의 학생들도 외국에 유학을 갈 경우 금액을 더 많이 내고 있다고 함. 공부하고 싶은 의지만 있다면 등록금의 액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함.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을 학부생들의 등록금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함.

- (서울) 총학생회장 : 학부 총학생회가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대학원생의 등록금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외국인과 대학원의 등록금에 관련해서는 견제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함. 그리고 외국인 학생도 총학생회를 선출하는 선거인에 포함되고 있으며, 학부 구성원 중 1명인만큼 외국인 학생들을 대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함. 그렇기에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생들도 학부와 같은 홍익대학교의 구성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함.

- 학생처장 : 외국인 학생들에 등록금 인상부분에서는 양해를 구하지만,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해서 해주겠다고 함. 대학원 등록금 인상부분은 대학원에 '홍익 사랑 장학금'을 신설했기에 크게 불만이 없을거라고 생각한다고 함.

- (서울) 총학생회장 : 120만원 상당인 대학원의 '홍익사랑 장학금'을 생각해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폭을 고려했을 때 효과가 미미하다고 이야기 함.

- (서울) 총학생회장 : 이미 학교는 예산 책정과정에서 등록금 인상을 포함

하여 재정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함.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고 함.

- **위원장** : 추경예산 설명을 보면서 말을 들어보고 대학원 등록금 1.6%인상을 했을시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는 빠른 시간 내에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니 연락을 준다고 함.

- **학생처장** : 예전보다 동대학원 진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본교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상상을 위해 장학금 뿐 아니라 다른 인센티브를 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함.

- **위원장** : 외국인 학생에 관련해서도 수시로 국제 협력 본부를 통해서 불편한 점을 세부내용까지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함. 이는 학교 학생 협의회에서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함. 이외에도 학생회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학생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달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외국인과 대학원생의 인상에 대해 다른 요인을 들어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을 그저 재원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며, 학교가 이미 인상수치를 토대로 예산까지 다 반영해놓은 상태에서 등심위 논의를 통해 실제로 그 인상 부분을 바꿀 수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함.

- **위원장** :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원래 외국인과 대학원생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함. 현재 학생 위원들의 주장은 알겠으나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분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함. 현재의 상황에 대해 총학생회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함.

첫째, 장학금이나 여타 요인은 혜택요인이지만 인상을 정당화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함. 특히 외국인 부분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할 권리가 있고, 등록금은 인류의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함.

둘째, 학교가 말하는 외국인과 대학원이 인상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정량화한 수치로 그 의견이 나오지 않았고, 동의 했다는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함.

셋째, 외국인과 대학원생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당화 요인은 현재 실제보다 혜택이 보장될 때 밖에 없다고 함.

넷째, 적립금은 그대로 쌓아둔 채로 청소경비용역의 실질적 해고 등의 운영 경비 절감과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 인상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이 입장에 따라 요청사항을 전달한다고 함.

첫째, 명분 없는 외국인, 대학원등록금인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함. 인상이 된다면 납득할 만한 정량지표로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함.

둘째, 내년부터 대학원 학생을 등심위 위원으로 배정 요청 함.

셋째, 미화경비용역은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과 연관되어있으므로 경비 절감을 이유로 실질적 해고를 진행한 청소용역문제 해고 철회를 해결을 요청 함.

1월 29일날 대학원생의 가고지에서, 실제로 인상이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것이라고 함. 요청사항에 대한 반영이 없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총학생회의 1년 계획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함.

추가로 산학협력실적 다음 회의때는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함.

- 위원장 : 대학원 발전 방안에 대해 학생들과 접촉해서 계속 논의 중이고, 대학원생을 등심위 위원으로 배정하는 것은 현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므로 불가하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어디의 권한인지 질의한다고 함

- 위원장 : 법률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부 등록금만 논의하게 되어 있다고 함.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학이 사실상 의무교육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그렇지만 대학원과 외국인은 상황이 다르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왜 상황이 다른 것인지 질의한다고 함.

- 위원장 : 본인들이 희망해서 진학하는 것이라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본인들이 희망해서 진학하는 것이라면 적립금은 최대한도 내에서 적립하고 등록금은 인상하는 불합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질의한다고 함.

- 위원장 :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이 필요하다고 함. 우리 학교는 법인이 법정 전입금을 모두 내줄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고 함. 흥익대학교는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발전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현재의 홍익대학교 구성원들에게 동의조차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이유로 적립금을 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함.

- 위원장 : 만약에 적립금이 있다고 해서, 지금 추가로 적립을 안 하면 앞으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적립하는 것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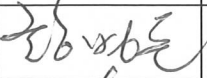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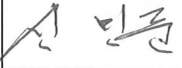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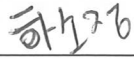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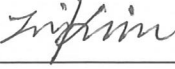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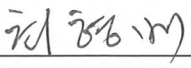
- (서울)총학생회장 : 학교가 매년 등록금 심의위원회 때마다 기조가 바뀌고 있음을 지적한다고 함. 이전까지의 경우 학교 위원들의 주장은 교육비 원가계산 적 측면에 가까웠으며 실제로도 차등 등록금을 받는 이유도 교육비 원가 계산적 이유였다고 함. 그러나 대학원의 경우 학부보다 수업의 수도 적고 학부보다 공간, 시설, 교원 등이 열악함. 지금 학교가 주장하는 바는 적립금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적립해야 하는데, 물가 인상 등으로 추가 경비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법적으로 인상에 대한 규제가 없는 유학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가깝다고 함.

- 관재팀장 : 작년 대비 청소경비 용역 임금이 훨씬 인상되었기 때문에, 청소용역으로 인한 경비절감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함. 사용빈도가 비교적 적은 공간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쓰레기 수거 문제 외에 화장실 청소 등의 문제는 어떻게 미화용역이 아닌 단기간 아르바이트 생으로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함. 이에 대해 동아리 연합회 등도 학교 측의 결정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함.

- (서울)총학생회장 : 금일 회의에서는 더 이상 진척이 없을 것 같으므로, 폐회를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함. 끝내기 전에 앞서 말한 요청사항 3가지, 외국인 및 대학원생 등록금 동결, 대학원생 등록금 심의위원회 자리 배석, 청소경비 용역 입장 철회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함.

- 위원장 : 제5차 등심위는 2018.01.29.(월) 3시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함.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참석위원	위원장	황 병 돈		위 원	신 민 준	
	위 원	고 경 호		위 원	하 소 정	
	위 원	김 중 인		위 원	오 재 원	
	위 원	최 형 배		위 원	최 가 은	
	위 원	심 재 익				
	참석현황	참석대상	9명	참석	6명	불참
작성자	재무팀 간사 이승용		작성년월일		2018.01.29	